

### 탄생 100주년 기념-곽인식

기간 2019.06.13.~2019.09.15.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전시실, 중앙홀

곽인식(1919~1988)은 일본 미술에서 사물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물성(物性)을 탐구해 온 작가이다.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선구적인 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세계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및 일본의 작품들과 미공개 자료들을 통해 현대미술계에서 곽인식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하였다.

### 고대의 빛깔, 옷칠

기간 2019.06.25.~2019.09.29.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전시실

우리나라 고대 옷칠을 소재로 국가지정문화재 3점 등 280여 점이 출품되었다.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멀게만 느껴졌지만 항상 우리 삶 가까이 사용된 옷칠 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된 전시였다.

### 문예 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기간 2019.06.28.~2019.09.22.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정조에 버금가는 문화적 성취를 이룬 효명세자를 조명하였다. 궁궐 영건 사업 및 궁중잔치와 궁중 정재(呈才)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다양한 유물과 문헌, 영상으로 소개하였다. 문예군주를 꿈꿨던 효명세자의 짧지만 찬란했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전시였다.

###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기간 2019.07.09.~2019.10.2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100년경까지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 지역

에 있던 고대 국가이다. 그들의 생활 모습과 세계관, 종교관, 사후 관념 등이 고스란히 담긴 3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문명의 숨결을 느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로마 문화의 근간을 이루지만 아직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에트루리아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 비격진천뢰

기간 2019.07.16.~2019.08.25.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2018년 전북 고창 무장천 관아와 읍성의 군기고(추정) 주변에서 11점의 비격진천뢰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주목 받았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의 전 제작 과정을 상세히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전하는 모든 비격진천뢰와 완구(碗口)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북촌, 열 한 집의 오래된 기억

기간 2019.07.19.~2019.10.06.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1860년부터 1960년까지 백 년간 서울 북촌에 거주한 열 한 가문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전시는 이 가문들을 둘러싼 주민들의 일상과 기억을 통해 북촌의 역사를 돌아본다. 이들은 다양한 삶으로 북촌의 역사를 이야기했으며, 현재 북촌이 만들어진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전시를 꾸었다.

###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기간 2019.07.19.~2019.11.24.

장소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는 고려청자 생산지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다. 1914년 최초 발굴 조사품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출토품을 선보였다. 전시품 중에는 처음 공

개되는 작품과 개성 출토품도 함께 출품되어 강진 청자요지가 지니는 위상을 보여주었다.

### 한글 타자기 전성시대

기간 2019.07.25.~2020.02.02.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한글타자기를 주제로 개최한 전시이다. 1969년 과학기술처의 '한글 기계화 표준 자판안' 제정 이후, 한글이 손글씨에서 기계 글씨로 변화된 1970~80년대를 조명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디지털 시대로 안내한 한글 타자기의 열풍도 함께 소개한다.

### 중국 낙양 출토 고대 묘지 탁본

기간 2019.07.23.~2019.09.08.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실

전시는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의 기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국보 제163호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과 중국 한~당대 묘지석 탁본 100여 점이 전시되며, 구성은 '묘지의 기원과 형식', '묘지의 유행과 변화', '부묘지', '백제 수용된 묘지'이다.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가야 사람들의 향수

기간 2019.08.13.~2019.10.06.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2

이 전시는 동해 추암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멸망과 그 이후 유민들의 삶을 재조명하였다. 유물 속에 담긴 대가야 사람들의 향수와 마음 속 이상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 전시였다.

## 한국의 수증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기간 2019.08.20.~2019.10.06.

장소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척에 이르는 옛 난파선이 확인되었다. 난파선과 그 안에 실려 있는 유물들은 과거 생활상과 사회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부산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공동기획으로 마련된 본 전시는 한국 수증보물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았다.

##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 - 모악산 금산사

기간 2019.09.04.~2019.11.30.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금산사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 백제 법왕 때 창건되어 현재도 조계종 제17교구본사로 법등을 밝히고 있다. 전시는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들의 업적, 금산사와 말사의 대표적 유물들을 통하여 금산사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3부, 2019

기간 2019.09.07.~2020.02.09.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덕수궁, 과천, 서울 분관에서 함께 개최되는 프로젝트 전시 중 제3부로서 동시대 부분에 해당한다. 집단적 연대감과 분열, 혼돈이 모두 공존하는 오늘날의 '광장'을,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이란 차원에서 끊임 없이 되묻고 성찰하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다원화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마주하는 질문과 상황을 동시대 미술을 통해 이야기한다.

##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기간 2019.09.09.~2020.02.02.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6년부터 진행된 <한글실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이다. 한글 창제 원리가 가진 조형적 특성 중 '조합'과 '모듈'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글자와 사물 간 연관 유희로서 '한글'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동시대 디자인·예술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이 선보이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 선비, 전복 서화계를 이끌다

### - 석정 이정직(1841~1910)

기간 2019.09.10.~2019.11.24.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복은 예향(藝鄕)으로 불릴 만큼 예술문화가 발전된 곳으로, 이정직은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당대의 통유(通儒)였던 이정직의 면모를 3부에 걸쳐 조명하였다.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四神(사신)이 호위하사,

### 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동하총)

기간 2019.09.10.~2020.01.27.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

전시는 부여 능산리 1호 동하총(東下塚)의 석실과 목관을 재현하여 백제 왕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흔적만 남아있는 사신(四神)의 모습과 연꽃구름무늬벽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하였으며, 백제금동대향로에서 살아 숨쉬는 용과 봉황 등 사신의 의미를 되새긴다. 아울러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견 과정과 세부 모습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우리 손에서 되살아난 옛 그림

기간 2019.09.11.~2019.10.13.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게 된 옛 그림 12점을 공개하였다. 보존처리를 거쳐 제 빛을 되찾은 우리 문화재가 세계인의 마음에 전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근대의 전통화가들: 호남과 서울

기간 2019.09.27.~2019.11.24.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개항 이후 서울에서 활동한 전통화가 조석진, 안중식, 김은호와 호남에서 활동한 채용신, 허형, 허백련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의도치 않은 곳에서 삶이 교차하였다. 한국미술사에서 지방 미술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가 된 전시였다.

## 한성에서 웅진으로I -공주 수춘리-

기간 2019.09.27.~2020.03.01.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공주 수춘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제의 웅진 천도가 갖는 역사적 배경 이해와 백제 중앙과 지역 세력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전시는 “프롤로그: 공주 수춘리”, “1부: 금강유역 세력의 성장”, “2부: 웅진천도의 중심세력, 공주 수춘리”, “3부: 웅진천도의 배경과 과정”, “에필로그: 웅진천도 그 이후”로 구성되었다.

## 우리 강산을 그리다:

###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기간 2019.09.30.~2019.10.2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그림의 창작자인 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경산수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였다. 현

장에서 스케치한 초본(草本)과 화첩, 두루마리, 부채, 병풍 등을 통해 각양각색으로 펼쳐진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화가의 시점에 따라 실제 경치가 화면에 그려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주관적 시선[해석]에 의해 해체, 재구성되는 양상을 조명하였다.

### 한글의 큰 스승

기간 2019.09.30.~2020.03.08.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및 한글날을 기념하여 국민 참여로 선정된 한글을 빛낸 인물과 숨은 주역들을 소개한다. 창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각 분야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조력자들을 소개하여,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가 만들어 갈 한글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화협옹주의 얼굴 단장

기간 2019.10.01.~2019.10.31.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

조선시대 영조의 딸인 화협옹주의 무덤에서는 가장 당시 발굴조사 과정에서 회지석, 아버지 영조가 지은 묘지석, 생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과 용기들, 거울과 거울집, 먹 등이 발견되었다. 용기 안에는 화장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번 전시에는 유물과 보존과학적 연구 성과도 함께 공개하였으며, 조선시대 화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조선도자, 히젠肥前の 색을 입다

기간 2019.10.01.~2019.12.08.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2019년 한일문화교류 특별전으로 마련된 전시이다. 조선 도자가 일본 도자문화에 끼친 영향과 함께 히젠의 색을 담은 일본

도자가 조선 도자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도자기를 매개로 한 조선과 일본의 교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본 도자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불후의 기록 - 서울대학교 소장 탁본

기간 2019.10.02.~2019.12.07.

장소 서울대학교 박물관

역사적 가치가 높은 탁본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전시였다. 다수의 내외기관들과 협력하여 마련된 이 전시는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고려시대 탐비와 묘지명에 이르기까지 서예사 및 미술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 미역과 콘부 - 바다가 있는 한일 일상

기간 2019.10.02.~2020.02.02.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1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의 공동특별전으로 마련되었다. 한일 양국에 친숙한 해초인 미역과 다시마를 통해, 닮은 듯 다른 두 문화의 일상을 보여준다. 전시는 해산물 소비문화에서 어업과 신앙, 근대기 일상 변동 등 바다를 둘러싼 한일 일상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 신라 이전의 경주

기간 2019.10.07.~2019.12.01.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선사시대의 경주를 조망한 전시이다. 선사인들은 어떻게 집단을 이루어 사회·정치적으로 성장하였고, 신라의 모태인 사로국을 세웠을까. 전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시대구분이 아닌 삶의 기술, 권력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 일본 교토 고쇼지(興聖寺)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공개

기간 2019.10.15.~2019.11.1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 조선 1실

이번에 공개된 사명대사 유묵은 사명대사 유정이 임진왜란 후 강화와 포로 송환 협상을 위해 일본 교토에 머물며 고쇼지(興聖寺)의 승려 엔니료젠(円耳了然, 1559~1619)에게 남긴 것이다. 이 유묵에는 양국의 평화를 이끌어 백성을 구하고자 한 마음과 구도자로서 승려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한 사명대사의 뜻이 담겨있다.

###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기간 2019.10.15.~2019.12.13.

장소 동국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전시이다. 당시 항일운동의 선봉인 불교계의 활약상과 소중히 불교정신이 담긴 유물을 선보였다. 처음으로 외부에 출품된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한용운의 유묵 등 일제에 항거했던 근대불교계의 관련 인물과 그 흔적을 조명하였다.

###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 1부.1900-1950

기간 2019.10.17.~2020.02.09.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의 해이다. 이 전시는 20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 미술의 역사를 조망한다. 그 중 제1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의로움'의 전통을 지켰던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유산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 고유의 정신과 미학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고투의 흔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 2부, 1950-2019

기간 2019.10.17.~2020.03.29.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2 전시실

한국 사회와 현대미술의 상응관계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계기로 살펴본다. 이 전시는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작가와 작품들이 서로 순환하고, 연대기적인 시간 흐름을 예술 작품과 자료를 통해 시각화한다. 또한 이를 문학, 연극, 커미션 작품 등을 통해 상호 교차, 편집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다각화시켰다.

### 나주 복암리 정초고분

기간 2019.10.18.~2020.01.05.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나주 복암리 정초고분 금동신발 출토 5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전시이다. 전시의 주제인 정초고분 금동신발을 재조명하고, 출토 유물 등 200여 점을 함께 전시하여 나주 정초고분의 고고학·역사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 1919 남도, 대한독립만세!

기간 2019.10.22.~2020.01.27.

장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번 전시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민족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이를 위해 희생했던 선열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시 남도 사람들의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수탈되었던 조선의 바다를 소개한다.

### 관동팔경 특별전Ⅳ : 고성 청간정

기간 2019.10.29.~2019.12.15.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2

관동팔경 시리즈 전시의 일환인 이 전시

는, 여행자의 휴식처로서 청간정의 유래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간정을 소재로 한 문학과 회화를 통해 금강산과 관동팔경에서 파생된 심, 여가, 치유, 이상향의 미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서화전 3: 안복眼福을 나누다

기간 2019.11.12.~2020.03.15.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고故 손세기님과 그의 아들 손창근님이 대를 이어 수집한 문화재를 2018년 11월 기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분들의 뜻을 기려 기증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이번 전시는 그 세 번째이다. 19세기 서화 수요층의 확장과 새로운 미감에 부응하며 김정희 일파 및 직업 화가들이 개성적인 작품을 제작했던 양상을 조명한다.

###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

기간 2019.11.22.~2020.06.21.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기획전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네덜란드 델프트시와 MOU체결로 수증한 누산타라 컬렉션을 최초 공개한다. 누산타라는 현대 인도네시아의 뿌리로 여겨지는 마자파힛 왕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으로, 350여 종족과 450여 종의 언어로 바탕으로 이룬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살펴본다.

### 낮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

기간 2019.11.26.~2020.03.01.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제주박물관의 '섬 문화' 브랜드 활성화로 '섬'이 가진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제주는 조선시대 유배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으로 그들의 유배도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였다. 전시는 유배인

들의 삶, 사랑, 학문 그리고 제주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 가야본성-칼(劍)과 현(絃)

기간 2019.12.03.~2020.03.0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가야의 존재방식은 공존이었다. 여러 가야가 어우러져 통합의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공존을 택하였다. 철로 만든 무기와 갑옷으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야금으로 완벽한 하모니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칼과 현이 가야의 본성인 것이다. 전시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야의 모습과 기억을 되찾는 시간을 가진다.

### 청 황실의 아침, 심양 고궁

기간 : 2019.12.11.~2020.03.01.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심양瀋陽은 청淸 황실의 근원지이며, 그 중심에 있는 심양고궁박물관은 가장 온전한 중국 황실 궁궐 중 하나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심양고궁박물관의 교류 특별 전시로, 심양 고궁의 건축적 면모와 함께 귀중히 간직해온 청 황실의 복식과 무기, 공예품과 장식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2019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콜로키움

일자 2019.07.16.~07.1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 • Section 1

1.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실크로드 소장품 '스타인 컬렉션(Stein Collection)'을 위한 새로운 방향  
- 록 윙(아시아부 큐레이터,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2. 중국 청룡전(靑龍鎮)과 북동아시아의 교역: 청룡전 출토 도자의 증거  
- 지엔원 왕(고고조사부 큐레이터, 중국 상하이박물관)
3. 8~14세기 한국과 중국의 청자유개합(靑磁有蓋盒) 연구  
- 유진 최(아시아부 큐레이터,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박물관)
4. 고려와 북송·요(遼) 간 물자 교역이 도자 예술에 미친 영향: 11세기 초~12세기 초를 중심으로  
- 유원 왕(큐레이터, 대만 고궁박물관)
5. 한국 문화재 국내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 채해정(미술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6. 한국 문화재 국외 전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한국의 역사와 문화  
- 권혜은(전시과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 • Section 2

7. 새로운 전시 기법과 관람객 체험, 디지털 미디어  
- 지연수(전시홍보과 과장, 국립고궁박물관)
8. 러시아 푸시킨미술관 특별전 "고대 중국의 제례와 음악"의 전시연출 방법론  
- 키이라 브야조브키나(고대동양부 큐레이터, 러시아 푸시킨미술관)
9. 러시아 에르미타시박물관 전시 활동에서의 몇 가지 측면  
- 리디아 포토호키나(아시아부 큐레이터, 러시아 에르미타시박물관)
10. 종교적 유약 불교 경전과 현대작가 윤광조의 도자 예술  
- 브라이스 헤더리(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 연구과정 연구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11. 한국 전통미술의 현대적 재해석: 돌에 새긴 기원  
- 윤길중(사진작가)
12. 대안적 내러티브의 모색을 위한 실험: 해외 한국미술 전시의 새로운 방향성  
- 서윤정(미술사학과 조교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 • Section 3

13. 스페인 정복 이전 콜롬비아의 고대 수리 기술과 의미  
- 헤토르 가르시아(고고민족학 큐레이터,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14.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의 수목(樹木) 도상 연구  
- 신 왕(큐레이터, 중국 삼성퇴박물관)
15. 중국 청두(成都) 진사유적박물관(金沙遺跡博物館)의 국제전 기획 사례  
- 징웨이 차이(큐레이터, 중국 청두 진사유적박물관)
16. 18세기 한국과 베트남의 초상화: 〈서직수 초상〉과 〈민난(Minh Nhan) 부인 초상〉을 중심으로  
- 레이 미혹 브영(에듀케이터, 베트남 국립미술관)
17. 필리핀 화가, 베르난도 조벨의 드로잉  
- 차논 프레이피파트몽콜(학예연구원,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
18. 오만 국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 전시 방법론 소개  
- 모우자 알 와디(유물관리부 부장, 오만 국립박물관)
19. 탑의 바다: 통일신라 사리장엄에 보이는 건축적 요소의 역할  
- 춘와 첸(미술학과 조교수, 중국 홍콩대학)

## 미술사학연구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09.07.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세미나실

공동주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사학연구회

### • 1부 : 미술사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

1. 한국적 양포르멜, 박수근과 주호희  
- 이승현(세화예술문화재단)
2. 애춘(霽春) 신명연(申命衍, 1809~1886)의 화훼화 연구  
- 배진경(국립체육박물관)
3. 조선 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정조 대 사행을 중심으로  
- 서윤정(명지대학교)

### • 2부 :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Ⅱ〉 특별 심포지엄 -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새로운 지형학"

기조발제, 작가 발굴과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새로운 지형

- 김현숙(KISO 미술연구소)

1. 여성화가 정찬영(1906~1988)의 공필화조화 연구  
- 배원정(국립현대미술관) / 질의: 송희경(이화여자대학교)
2. 일제강점기 백윤문의 이원적 창작활동  
- 최경현(문화재청) / 질의: 신선영(문화재청)
3. 청계 정중여의 불교 주제 회화  
- 최영(동국대학교) / 질의: 신수경(문화재청)
4. 이규상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  
- 윤인복(인천가톨릭대학교) / 질의: 최병진(한국외국어대학교)
5.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과 도자기 벽화, 예술의 종합과 전통  
- 조현정(카이스트) / 질의: 오윤정(계명대학교)

## 2019, 11th 국제학술강연회: 16-18세기 '格'과 '物'

일자 2019.09.2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재단법인 리앤원

1. 대항해시대를 넘어서 - 일본 도자기의 혁신과 그 정화(精華)
  - 아라카와 마사야키(일본 가쿠슈인 대학 교수)
2. 세계 도상 흐름에서의 시각동차: 18세기 청대 공정의 예를 통해
  - 라이위지(대만 중앙연구원 교수)
3. 에도시대 초기 베트남 골동도자의 수입
  - 야지마 리츠코(도쿄 마치다시립미술관)

## 한국미술이론학회&서울시립미술관 - 공공성의 재구조화 :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활용방안

일자 2019.09.2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

1. 북아프리카 옛 프랑스 식민지역에서의 문화재 개념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튀니지 정부의 문화재 보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암 바사(파리 소르본느Ⅳ대학)
2.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보호: "공공성"의 실천 -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화 시대의 도전으로.
  - 그리고 미술품 보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페데리카 자코미니(이탈리아 문화부, 보존 보수 연구소)
3. 문화유산학의 탄생: 과정으로서의 유산과 유산의 해석
  - 이현경(한국외국어대학교)
4. 크노소스: 아서 에번스의 '재구성'과 이후의 전개
  - 조은정(목포대학교)
5. 영국 고고학 유적의 현대적 복원 및 활용사례
  - 이화진(고려대학교)
6.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새로운 접근
  - 송지영(해곡최순우기념관)
7.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역사관-서울시립미술관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사례 연구
  - 신성란(서울시립미술관)
8. 종합토론

## 600년 왕실사찰 서울 흥천사 불화

일자 2019.10.1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주관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주최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 흥천사 왕실발원 불화의 성격과 극락구품도의 도상 해석학적 연구
  - 문명대(동국대학교 명예교수)
2. 흥천사 아미타불회도 연구
  -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 / 토론: 이분희(불교중앙박물관)
3.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연구
  - 고승희(중앙승가대학교) / 토론: 주수완(고려대학교)
4. 흥천사 지장시왕도 연구
  - 김정희(원광대학교) / 토론: 김창균(전 동국대학교)
5. 흥천사 신중도 연구
  - 신은미(민천아민사박물관) / 토론: 유미나(원광대학교)
6. 흥천사 약사불회도 연구
  - 김경희(건국대학교) / 토론: 이수예(동국대학교)

## 2019년 제62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미술사학회

일시 2019.10.26.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1.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상 도상에 보이는 중기밀교적 특징
  - 유정애(충북대학교)
2. 조선왕실 俗祭用 祭器의 운용과 조형원리
  - 구혜인(이화여자대학교)
3. 베트남 응우옌(阮, Nguyễn) 황릉의 능제 변화
  - 김지혜(서강대학교)
4.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물질적 수용: 불복장과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 김보민(명지대학교)
5. 조선 전기 관요(官窯) 운영 방식 연구
  - 김미소(경기도자박물관)
6. 조선 17~18세기 백자철화운룡문호의 용도와 의의
  - 이현정(서울공예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한국고지도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고지도 속의 강원〉

일자 2019.11.01.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1층 강당

공동주최 한국고지도연구학회·국립춘천박물관

• 1부

1. 기조강연: 다섯 번의 금강산 답사 탐승, 1998~2019년  
- 이태호(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장)
2. 19세기 문인들의 백과사전식 저술활동과 금강산 그  
- 이영수(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3. 조선시대 간성 선유담의 문화사  
- 김세호(성균관대학교)

• 2부

4. 김홍도의 관동사경과 올진 문암  
- 김울림(국립춘천박물관)
5. 그림 속으로 들어간 간성의 명소, 청간정  
- 박효은(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미술사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11.09.

장소 홍익대학교 미술종합강의동 U동 B101호

1.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및 석실의 재고찰  
- 민활(불교문화재연구소)
2.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군 연구  
- 김추연(대한불교조계종)
3. 世祖御眞의 保存과 그 形跡  
- 신민규(국립고궁박물관)
4. 올진 佛影寺의 佛事를 통해 본 불화  
- 정선유(홍익대학교)
5. 조선 후기 안성 칠장사의 불상 조성배경 연구  
- 김윤선(불교문화재연구소)
6. 일제강점기 오봉반의 전시기획과 서화매매  
- 안세현(홍익대학교)
7. 근대기 동아시아 서양화단의 포비즘 수용과 전개  
- 김효정(홍익대학교)
8. 지오바니 모렐리 방법론으로 본 조선 후기 불상의 조형성  
- 조태건(불교문화재연구소)
9. 아이웨이웨이의 초기 회화 연구  
- 정창미(명지대학교)

제 34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 ‘통도사의 승려와 불교미술’

일자 2019.11.09.

장소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지하 1층

1. 김홍도의 불교회화: 이백의 〈승가가〉 주제를 중심으로  
-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2. 조선후기 목각설법상 연구  
- 한길중(국립문화재연구소) / 토론: 서지민(충북대학교)
3. 통도사 출신 승려들의 승탑 현황과 의의  
- 엄기표(단국대학교) / 토론: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
4. 통도사 진영에 표현된 가사의 특징  
- 이선용(위덕대학교) / 토론: 이순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통도사 대웅전 신중도 연구  
- 현주(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토론: 김형곤(동국대학교박물관)

한국미술사교육학회-제58회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11.3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로마 빌라 파르네시아의 갈라테아 방 천장화에 표현된 키지  
가문의 이상과 야망  
- 권민지(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2. 고려 전기 원주지역 철불의 조성  
- 권보경(동국대학교박물관)
3. 미니멀리즘의 공간에 관하여: 도널드 저드의 '특수한 사물',  
뉴욕, 그리고 마르파  
- 이임수(홍익대학교)
4. 청도 운문사 佛龕의 조형과 장인  
- 나윤호(동국대학교)
5. 18세기 영국 우스터 자기와 중국수출자의 영향관계: 청화백자  
풍경문 주자를 중심으로  
- 이정민(고려대학교)
6. 근대 자수천수관음보살도의 양상과 조성배경  
- 김우경(동국대학교)
7.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한국 범종 고찰  
- 최응천(동국대학교)



## 2019년 한국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12.0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 미래의 미술사학
  - 강우방(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2. 진전사지 삼층석탑 부조상의 도상 분석
  - 한지연(충북대학교)
3. 10~12세기 佛塔 內 銅鏡 奉安 樣相과 性格
  - 최자연(동국대학교)
4. 인장과 제발을 통해본 丁學敎(1832-1914)의 서화활동
  - 임정연(국립한글박물관)
5. 회화와 직조의 결합, 紙織畫 연구
  - 김수연(한국학중앙연구원)
6. 조선시대 관요(官窯) 사기장의 입역체제 연구
  - 이슬찬(명지대학교)
7. 근대기 불교계의 변화와 불화의 새로운 특성 -공주 마곡사의 불사를 중심으로-
  - 최수경(국립중앙박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 국내학술회의

### - “名畫의 발견 大家의 탄생” : 한국회화사를 돌아보다

일자 2019.12.13.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1부
  1. 겸재 명성의 증거 검토
    - 고연희(성균관대학교) / 토론: 이경화(서울시립대)
  2. 최북, 기인 화가의 탄생
    - 유재빈(홍익대학교) / 토론: 권혜은(국립중앙박물관)
  3. 신윤복 '미인도'의 부상
    - 김지혜(건국대학교) / 토론: 박성희(부산대학교)
- 2부
  4. 장승업 흥행의 이유
    - 김소연(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이정은(홍익대학교)
  5. 누가 김정희를 만들었는가?: 김정희 명성의 형성과 신화화
    - 김수진(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김현권(문화재청)
  6. 조선후기 서화시장을 통해 본 명작의 탄생과 위작의 유통
    - 서윤정(명지대학교) / 토론: 장진아(국립중앙박물관)
  7. 종합토론
    - 좌장: 박은순(덕성여자대학교)

## 부산박물관·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 - 미얀마의 불교미술

일자 : 2019.12.13.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 1부
  1. 미얀마 고대 뷔 왕국의 불교미술과 인도의 영향
    - 강희정(서강대학교) / 토론: 양은경(부산대학교)
  2. 미얀마 문화유산 ODA사업과 파야똌주 사원 발굴조사
    - 전범환·김용준(한국문화재단) / 토론: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3.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창건과 양식적 특징
    - 주경미(충남대학교) / 토론: 차윤정(불국사박물관)
- 2부
  4. 바간 로카테익판 사원의 도리천설법도와 연등불수기 본생도 연구
    - 하정민(서울대학교) / 토론: 고정은(제주대학교)
  5. 미얀마 꾀바웅조 말기 빠러바익의 도상적 특징과 기능 : 수미산도가 그려진 화첩을 중심으로
    - 김미소(서강대학교) / 토론: 김미경(문화재청)
  6. 종합토론